

사료절약을 위한 사양관리의 개선



김 영 환

- ▲ 서울대 농대 축산과졸('62)
- ▲ 대한사료 생산과장('66)
- ▲ 천호부화장 전무('68)
- ▲ 現 영진농장대표 본지 편집위원장('79)

1. 모이통과 급이방식의 개선

어느양계장을 가보아도 산란 케이지 밑 땅 바닥에 쌓인 사료, 평사로 된 육성계사의 모이통 주위에 쌓인 사료는 흔히 볼수가 있다. 시설과 관리자의 상관적인 책임이다.

육성계사의 모이통 - ① 평사로 된 육성계사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원통형 모이통은 겉으로 허실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모이먹는 부분이 좀더 커도 좋다.

② 그리고 병아리가 자람에 따라 모이통의 바닥 높이를 병아리의 등높이 수준과 같게 높혀 주어야 한다. 모이통 높이가 낮으면 닭은 골라먹고, 헤치며 먹는 버릇이 생겨 사료낭비가 많아진다.

③ 모이통 바닥판과 몸통의 간격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사료가 흘러 넘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한다.

산란 케이지에서의 사료급여 - ① 산란케이지에서 플라스틱 모이통을 좀더 크게하면 사

료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② 플라스틱 모이통을 고정시켜주는 철재가 너무 약하여 모이통이 앞으로 수그러지기 때문에 사료낭비가 많다. 골진 철재로 개선해야 한다.

③ 사료급여시에 낭비가 너무 많다. 시험적으로 케이지 알받이 판 밑에 함석을 부착하고 그 위에 떨어지는 사료를 모아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관리자를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④ 사료 급여회수를 1일 2회로 하는것은 사료를 낭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일 3회가 좋다.

⑤ 3단 케이지의 경우 모이를 낭비하지 않고 3단에 사료를 주는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급이시설을 기계화하면 위의 5가지 낭비요인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2. 케이지 물통의 개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지에 부착된 U

자형 물통은 사료 낭비라는 면에서 볼때 더욱 연구 개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미국의 러저(RUTGER) 대학의 급수기 비교시험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시험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케이지 물통에서 손실되는 연간 사료량은 수당 1.5kg이상이 넘고 U자형 대신에 V자형 물통으로 바꾸면 손실량은 반으로 줄어 수당 855그램이 매년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 더비킹된 닭의 사료손실량은 더비킹하지 않은 닭에 비해 2배나 많다. 케이지 급수기의 물 깊이를 깊게 할수록 손실량은 증가하고, 물 깊이를 1.3cm로 낮게하여 주면 사료 손실량은 반으로 준다. 물 깊이를 낮게 할때의 주의점은 급수기 배열을 수평으로 유지하여 닭이 탈수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양 전문가들은 하루에 물을 3시간 단수시켜 그동안에 물통에 떨어진 사료를 쪼아먹게 해주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지 물통은 U자형을 V자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트컵이나, 니플 급수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케이지 물통을 V형 물통으로 바꾸면 1수당 연간 700그램의 사료절약이 가능하고 전국 산란계 2,000만수가 연간 14,000톤-약15

억원을 절약 할수 있고, U형 물통을 니플급수기로 바꿀 경우 연간 30,000톤-약 32억원의 사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 유지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

대형 산란계는 중형 산란계보다 체중이 100그램 이상 큰것이 보통이다. 성체중이 100그램 큰닭은 1년에 12kg의 사료를 더 먹는데 이것은 산란을더하기 위하여 섭취되는것이 아니고 오직 체중이 크기 때문에 더 드는 몸 유지 사료이다.

중형체구의 산란계로 바꾼다면 전국의 대형계 수수를 800만수로 볼때 연간 사료9,600톤-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4. 육성사 시설의 개선

산란용 중대추를 평사 사육하는 것이 좋으나? 케이지 사육하는 것이 좋으나는 문제는 단언 할수 없으나 케이지 사육을 하여도 좋은 산란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농장사정에 따라 케이지 육성을 하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케이지 육성을 하려면 우선 대추 케이지시설에 목돈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일단 시설을 하고나면 관리노력이 평사보다 적게들고, 발육 초과된 닭과 부진한 닭을 따로 수용하여 균일한 발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발육초과된 닭에게 사료를 제한하여 급여하면 육성사료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산란기가 되어서도 과도한 사료섭취를 하는 것을 육성기에 미리 조절할 수 있어서 좋다.

케이지 육성을 권장하는 또 하나의 최대이유는 육성중 내부기생충(콕시듐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사육성을 하면 크든 적든간에 콕시듐의 피해를 한번은 받게 되어, 그로인한 성장부진-사료 효율저하, 타질병의 병발, 폐사 증가, 발육 불균일

사료허실에 대한 러저대학 시험성적

사 료	급수기 종류	닭의 상태	연간수당사료 허실량 gm
가루모이	깊고둥근물통	더비킹된 닭	1620
가루모이	"	더비킹안한닭	1260
가루모이	V 형 물 통	더비킹된 닭	855
가루모이	"	더비킹안한닭	450
가루모이	니플급수기	더비킹된 닭	90
가루모이	"	더비킹안한닭	90

등을 초래하게 되고 또는 막대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지 육성을 더욱 권장하고 싶다.

또는 케이지 육성을 하면 기온저하, 썩음, 개의 침입 등으로 인한 압사를 전혀 염려 할 필요가 없다.

대추케이지 시설을 하면 산란용 초생추는 30일부터 120일령 혹은 초산전까지 수용할수 있다.

5. 산란계사의 시설

겨울철에는 산란계사의 양쪽 벽에 비닐이나 비닐직포를 둘러쳐서 보온하는 수밖에 없다.

계사 보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벽보다는 천정이다. 지붕 스텔트 밑에는 최소한 25mm내지 40mm의 스티로폼을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계사가 너무 추우면 사료급여량이 크게 증가 하면서도 산란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6. 구서(驅鼠)

대낮에 쥐가 트라스위를 활보하는 정도라면 쥐가 상당히 많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을에는 들쥐가 양계장으로 침입하여 숨기때문에 일년에 3~4회는 반드시 쥐약을 놓도록 한다.

저녁에 케이지 모이통에 사료를 남겨 놓는 것도 쥐를 막는면에서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산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양관리 요점이 즉 사료를 절약하는 길과 통한다.

육추 육성 프로그램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초시설 프로그램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삼송가축약품상사

취급종류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2) 축산기구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 일절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세미
- 노계 { 백색
 유색

☎ (389) 9658

